

SK, 신일본석유와 전략적 제휴

석유 · 석유화학 교환 · 공동이용에 합작까지 ... 주식 1%씩 상호매입

SK와 일본 최대 석유기업인 新日本石油가 사업전반에 걸쳐 전략적 제휴관계를 수립했다고 양사가 1월22일 발표했다.

국적이 다른 유수의 석유기업이 포괄적인 제휴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사는 해외자원 개발, 수급, 석유화학, 운할(기)유, 해외사업 등 주요 5개 사업에 걸쳐 서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신규사업 기회도 적극 공동 창출하게 된다.

자원개발은 탐사, 개발, 매입 등에 대해 공동사업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양사는 기술교류회 운영 등 상시적인 평가분석 및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과 관련해서는 원유 · 석유제품 교환과 대여, 출하설비와 수송수단의 상호이용 및 공동이용 추진, 정유공장 정기보수시 제품 및 반제품의 상호대여 추진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생산제품 교환과 대여, 제조 · 출하설비 및 수송수단의 상호이용 및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생산설비 공동건설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 운할유사업 확대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운할유 교환 및 대여, 운할유 블렌드(혼합) 설비 상호 및 공동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지역 생산설비 공동건설을 비롯해 석유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사업화 검토를 과제로 설정하고 수송, 정제, 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서도 다양한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키로 했다.

양사는 제휴기간을 10년(기한 2017년 3월말)으로 정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했다.

신현철 SK 사장은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석유산업에서 양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기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제휴를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사는 제휴 공고화를 위해 서로 각사 전체 발행물량의 1% 선이나 이내에서 주식을 상호 매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각사에 서로 지분을 갖는 방식의 자본제휴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SK는 이르면 시일 내에 신일본석유 주식 1432만주를, 新日本石油는 SK 주식 129만주를 각각 사들일 계획이다.

1888년 설립된 新日本石油는 석유제품 정제와 가스 수입판매, 전력 발전 등 에너지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 523억달러의 매출과 14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일본 전국에 정유공장 7곳을 두고 있으며, 하루 정제량은 122만배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3위(SK는 SK인천정유 포함 111만5000배럴로 4위)의 석유기업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2>